

## 청년층의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실태

-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8년 105만 명이 넘었으며, 그중 41만 명(38.8%)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함.
-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2~2018년간 연평균 6.0%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공기업 채용 시험 준비자는 연평균 3.9%, 민간기업 채용 시험 준비자는 연평균 2.4%씩 증가하고 있음. 반면, 자격증 및 기타 시험은 연평균 -3.6%씩 감소하고 있음.
-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수 1위는 남자의 경우 민간기업 채용 시험(2012년) → 공무원 시험(2018년), 여자는 자격증 및 기타 시험(2012년) → 공무원 시험(2018년)으로 변동됨.
- 20~24세 청년층의 경우 2012년에는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(16만 2천 명, 38.9%)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현재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자(15만 9천 명, 35.4%)가 가장 많음.
- 대졸 미취업자의 절반가량이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, 특히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 대졸 미취업자가 크게 증가함.

### | 주 |

이 글은 '오호영(2014), 「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」, 「KRIVET Issue Brief」, 49호'를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 및 추가 분석하여 작성함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#### | 청년층 취업난의 장기화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음.

-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준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.
  - 정부에서는 채용 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 관행의 정착, 청년층의 취업 준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여 왔음.
  - 청년층 취업난의 지속으로 인하여 공무원, 공기업, 대기업으로 편향된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으며, 청년층의 취업 준비 부담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.
  - 청년층의 취업 준비가 소위 스펙경쟁으로 지칭되는 소모적인 양상을 극복하고,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실태를 살펴보고, 채용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#### | 분석 자료: 통계청의 「2012년~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」

- 분석 자료: 통계청의 2012~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사용함.
  - 통계청은 최근 수정된 인구 베이스를 가지고 2011년 데이터부터 승수(weight)를 재조정하였음. 따라서 재조정되기 이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물<sup>1)</sup>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.
- 분석 대상: 조사 당시 만 15~29세 청년층
- 용어 정의
  - 취업 관련 시험 유형: ① 공기업(엔론사, 공사·공단 등 국·공영기업체), ② 민간기업(대기업·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), ③ 공무원(교원임용고시<sup>2)</sup>, 외무·사법시험·행정고시 등, 일반직 공무원<sup>3)</sup>, ④ 자격증 및 기타(변리사·공인회계사 등 전문 분야 자격증, 미용사·조리사 등 기능 분야 자격증, 기타)
  -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: (조사 당시) 지난 1주간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는 자

### | 각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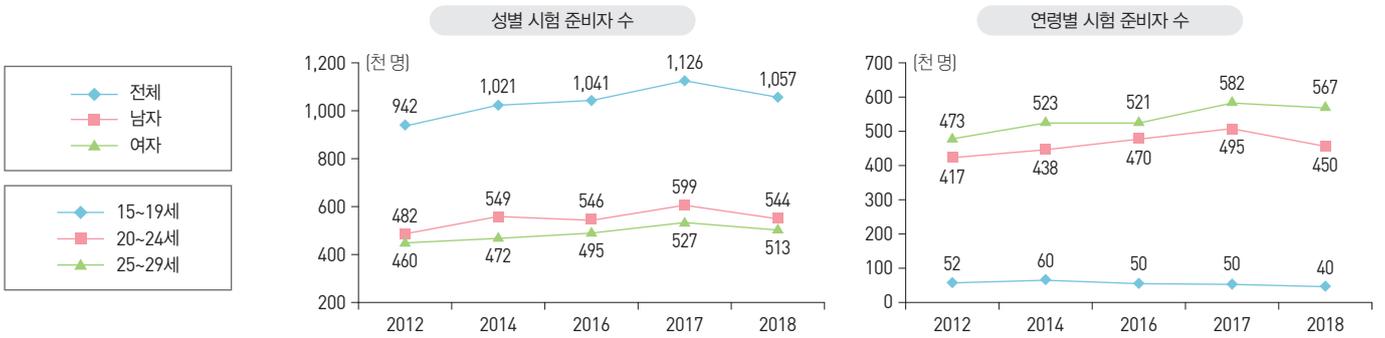
- 1) KRIVET Issue Brief 49호 「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」 포함
- 2) 사립교사 포함
- 3) 경찰·소방·군무원 포함



02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규모 추이

| 올해 105만 명이 넘는 청년이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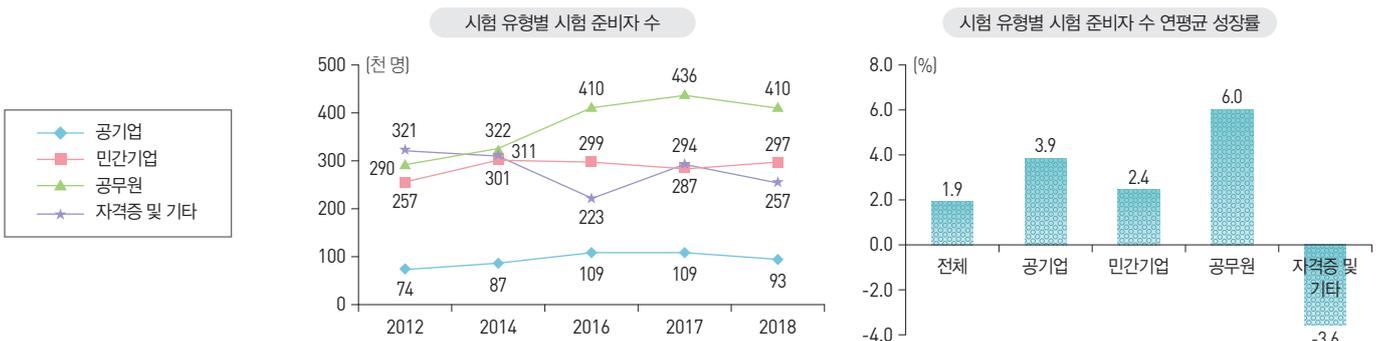
-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2012년 94만 2천 명(전체 청년층의 9.9%) → 2018년 105만 7천 명(11.5%)으로 증가함.
  - 성별로는 남자가 2012년 48만 2천 명(10.2%) → 2018년 54만 4천 명(11.9%), 여자는 2012년 46만 명(9.6%) → 2018년 51만 3천 명(11.2%)으로 증가함.
- 연령별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20대 후반(25~29세) 청년이 2012년 47만 3천 명(13.8%) → 2018년 56만 7천명(16.6%)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.
  - 20대 초반(20~24세) 청년층은 2012년 41만 7천명(15.0%) → 2018년 45만 명(15.2%)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, 19세 이하 청년은 2012년 5만 2천 명(1.6%) → 2018년 4만 명(1.5%)으로 감소함.



[그림 1]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수

|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38.8%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, 그 수는 연간 6%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

- 시험 유형별로 살펴보면,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41만 명이며,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38.8%로 1위를 차지함. 그 다음은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가 29만 7천 명(28.1%),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는 25만 7천 명(24.3%), 공기업 시험 준비자는 9만 3천 명(8.8%) 순임.
  -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012년 29만 명(30.8%) → 2018년 41만 명(38.8%)으로 연평균 6.0%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  -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는 2012년 25만 7천 명(27.3%) → 29만 7천 명(28.1%)으로 연평균 2.4%씩 증가함.
  - 자격증 및 기타 관련 시험 준비자는 2012년 32만 1천 명(34.1%) → 2018년 25만 7천 명(24.3%)으로 연평균 3.6%씩 감소하고 있음.
  - 공기업 시험 준비자는 취업 시험 준비자의 8.8%로 가장 적으나, 연평균 성장률은 3.9%로 공무원 시험 준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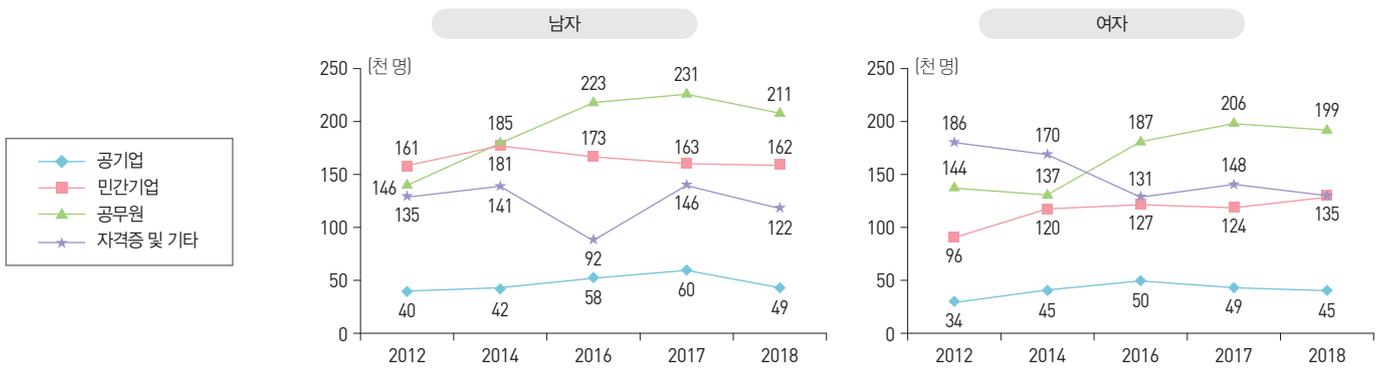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시험 유형별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수 및 연평균 성장률

03 인적 특성별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실태

남자는 민간기업 채용 시험 → 공무원 시험, 여자는 자격증 및 기타 시험 → 공무원 시험으로 7년 사이에 준비자가 가장 많은 시험 유형이 바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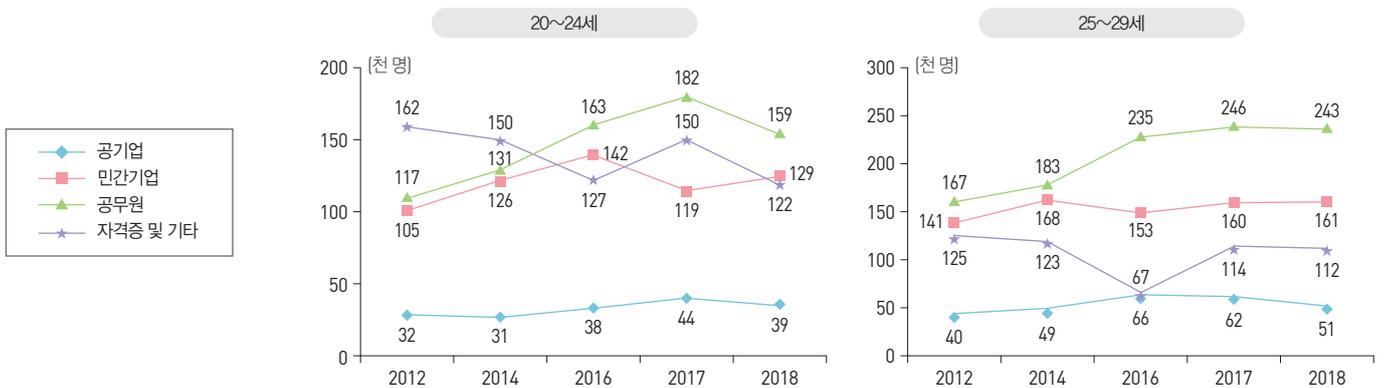
- 남자의 경우 2012년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가 16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이후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16만 2천 명 수준에 머물.
  -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012년 14만 6천 명 → 2018년 21만 1천 명으로 증가함.
- 여자의 경우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는 2012년 18만 6천 명 → 2018년 13만 5천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, 여타 시험 준비자는 꾸준히 증가함.
  -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012년 14만 4천 명 → 2018년 19만 9천 명으로 증가함.



[그림 3] 성별 · 시험 유형별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수

20대 초반 청년층의 경우 과거에는 자격증 및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가장 많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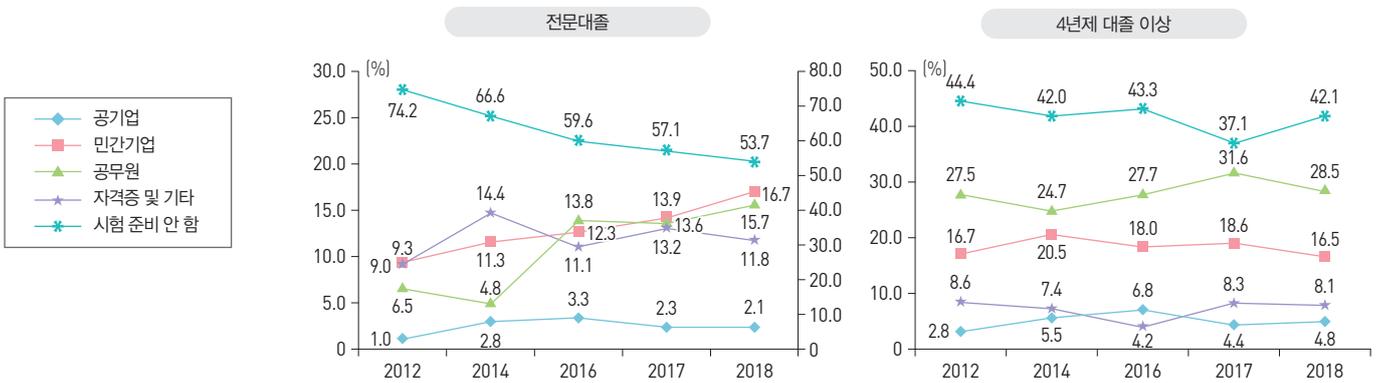
- 20~24세 청년층의 경우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는 크게 줄고 입사시험 준비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  -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012년 11만 7천 명(28.1%) → 2018년 15만 9천 명(35.4%)으로 4만 2천 명이 증가하였고,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도 2012년 10만 5천 명(25.2%) → 2018년 12만 9천 명(28.7%)으로 2만 4천 명이 증가함.
  - 반면,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는 2012년 16만 2천 명(38.9%) → 2018년 12만 2천 명(27.2%)으로 4만 명이 감소하였고, 20대 초반 시험 준비자 중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1.7%p 하락함.
- 25~29세 청년층은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2012년 16만 7천 명(35.3%) → 2018년 24만 3천 명(42.8%)으로 7만 6천 명이 증가함.



[그림 4] 연령별 · 시험 유형별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수

대졸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, 4년제 대졸 이상 미취업자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.

- 대졸 미취업자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는 2012년 34만 1천 명(43.1%) → 2018년 46만 1천 명(54.1%)으로 증가함.
  - 전문대졸 미취업자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는 2012년 8만 5천 명(25.8%) → 2018년 12만 9천 명(46.3%), 4년제 대졸 이상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는 2012년 25만 5천 명(55.6%) → 2018년 33만 2천 명(57.9%)으로 증가함.
- 전문대졸 미취업자 중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는 16.7%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공무원 시험이 15.7%, 자격증 및 기타 시험은 11.8%, 공기업은 2.1%임.
  -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자 비율이 2012년 6.5% → 2018년 15.7%로 크게 증가하였고,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도 2012년 9.3% → 2018년 16.7%로 증가함.
- 분석기간 중 4년제 대졸 이상 미취업자의 시험 유형별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비율은 소폭 감소에 그침.
  - 2018년 기준 4년제 대졸 미취업자 중 공무원 시험 준비자 비율은 28.5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민간기업 시험 준비자가 16.5%,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는 8.1%, 공기업 시험 준비자는 4.8%임.



[그림 5] 학력별 미취업자의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비율

04 시사점

- 성, 연령, 학력을 불문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가 청년층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청년층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  - 대학입시가 초중고 학교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이 대학교육, 청년층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.
  - 객관식, 암기 위주의 공무원 공채시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, 창의성, 협동작업, 소통능력, 학습능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도록 공무원 공채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.
- 청년층의 취업 준비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부를 포함한 고용주들의 채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임.
  - 청년층에게 취업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, 대기업 등 책임있는 고용주들이 채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류전형, 면접, 집단토론 등 채용도구를 다양화,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요함.
  -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학교교육에 충실히 전념하고 청년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잉스펙을 쌓지 않아도 채용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과도한 취업 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.

오 호 영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

이 은 혜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위원)